

# 콘텐츠산업 혁신 이끌 인재 육성

#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연기 가능성 제기

한콘진, 올해 교육 운영기관 모집  
창의인재 동반·원캠퍼스 구축  
실감형 창작자 양성 등 추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콘텐츠산업 혁신을 이끌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기관을 45곳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진흥원은 ▲창의인재 동반사업(103억8000만원)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사업(37억원)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18억9000만원) 등을 통해 총 1600여 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2012년 시작해 1800여명을 양성한 사업으로 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제식 멘토링 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제작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550여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콘텐츠 창작 분야에 특화된 기업·기관·협회·단체·학교 등 법인인 플랫폼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20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6개 내외의 지역 플랫폼기관을 선정한다.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사업은 대학·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아울러 융복합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VR웹툰,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버추얼캐릭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창작·제작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10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대학원, 지역진흥원, 기업,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콘텐츠산업 혁신을 이끌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기관을 45곳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9 창의인재사업 성과 발표회.

기관 등 대학·대학원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총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이 중 50% 이상을 지역 소재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할당한다.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0여명의 실감콘텐츠 창작·제작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 5개 내외의 교육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기업, 기관, 민간단체, 대학 등의 학교 및 부설연구소이며 신청기관은 관광·엔터테인먼트·스포츠·교육훈련 분야 프로젝트를 기반

으로 한 교육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오는 5일까지,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 사업과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은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은 "창작자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콘텐츠 분야의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인재는 교육 이후에도 콘텐츠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내달 30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0일 이사회서 일정 논의

오는 4월 30일 개막할 예정인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영화제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북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정된 개최 일정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찾아올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열린 이사회를 통해 영화제 일정을 비롯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만 18세 이상 일반인 대상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강생을 10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 예술위, 내부감사 품질인증 취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글로벌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으로부터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내부감사 품질인증은 국제내부감사기준(IPPF)에 준하는 한국감사표준원의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지침'(ISRRPF)에 따라 기관의 내부감사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선출 감사는 "3년 연속 내부감사 품질인증 취득은 예술위의 감사 품질이 꾸준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 '자가격리 어기고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12일 징계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레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징계 수위가 1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자 같은 달 24~28일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이 자가격리를 했다.

다행히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원, 단원은 없었다. 그런데 단원 한명으로 인해 사달이 났다.

대구 공연에 참여한 단원 나대한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떠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그의 여행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를 확진 받지 않았지만 자가격리가 풀리기 전에 그것도 해외로 여행을 간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나대한은 논란 직후 소셜 미디어 계정을 닫았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은 자신이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호텔에만 있다가 다음날 바로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국립발레단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 중"이라고 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규정이 있다. 하지만 나대한의 경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나대한이 해임까지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과도한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한편에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여론이 악화돼 감염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은 있다.

국립발레단에서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드물다. 2000년대 중반 패션잡지 '보그' 한국판에 상반신 누드 사진을 공개한 단원이 감염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국악에 관심 있으시다면?'

국립민속국악원, 일반인 대상 '청출어람' 수강생 모집  
내달부터 12월까지 초·중급과정 운영 올해 고법반 신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만18세 이상 일반인 대상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강생을 10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국악강좌는 수강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관소의 장단을 배울 수 있는 고법반을 신설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은 대급초급, 해금초

급, 관소리, 가야금, 한국무용을, 목요일은 고법초급, 대급중급, 해금중급, 가야금병창이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수강료는 12만원이며, 처음 접하는 수강생에게 우선접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수강생(2017~2019년도 기수강생)은 접수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습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